

明代 女性の 克己復禮*

— 明代話本小說에 보이는 ‘섬김’ 행위를 중심으로 —

金 素 貞**

<目 次>

I. 서론	III. 가족에 대한 ‘섬김’
II. 남편에 대한 ‘섬김’	IV. 결론

I. 서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이한 성 역할을 수행한다. 자고로 중국전통사회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을 견지해왔다.

“陽은 단단함을 덕으로 삼고, 陰은 부드러움을 쓰임으로 삼는다. 남자는 강함을 귀하게 삼고 여자는 약함을 아름다움으로 삼는다.”¹⁾

남성에게는 陽이 지닌 속성인 강함이 요구되었고, 여성에게는 陰이 지닌 속성인 부드러움이 요구되었다. 여성의 부드러움은 아래에 처하면서 남성을 섬기는 순종(順)이라는 행위로 구체화되었으며²⁾, 낮은 곳에 처하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5-JO6203).

** 釜山大 人文學研究所 研究教授

1) 班昭, 《女誡·敬順·第三》.

2) 《女誡·敬順·第三》에 보면 “강함을 피하는 것으로 순종만한 것이 없다.(避

면서 온화한 태도로 남편을 섬기는 것이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로 규정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전통사회의 가정은 남편의 통솔과 부인의 섬김이라는 양자의 상보관계를 기초로 탄생되었다.³⁾ 남편은 아내를 거느림으로서 威嚴을 획득했고, 아내는 남편을 섬김으로서 義理를 실천했다. 남편의 통솔과 부인의 섬김은 역할이 상이할 뿐, 사실 그 쓰임은 하나이다. 말하자면 담당하는 역할은 다르나 그것의 쓰임은 하나, 즉 화목한 가정의 건설과 번영에 있다. 중국전통사회가 표방하는 이상적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억압과 복종이라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였다.⁴⁾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를 섬길 때 그 대상은 완전무결한 신성한 존재이거나 혹은 인격적 고매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남편은 슬한 결함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이러한 존재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여성에게 특히 ‘敬順’이라는 덕목이 요구되었다.⁵⁾ ‘敬’이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함을 알고 변함없는 태도로 공경하는 것이며, ‘順’이란 아래에 처함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공경은 아래도록 불변하는 ‘항상성’으로 나아가며, 순종은 ‘관대함’으로 나아간다. 남

強莫若順)”라고 하여 여성에게 유독 ‘순종(順)’이라는 덕목이 요구된 이유는 바로 강함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 3) 남녀의 역할 차이에 관해 班昭의 《女誡·夫婦·第二》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남편이 현명하지 못하면 부인을 통솔할 수 없고, 부인이 현명하지 못하면 남편을 섬길 수 없다. 남편이 부인을 통솔하지 못하면 위엄과 장중함이 없어지며, 부인이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 義理를 훼손시키게 된다. 바야흐로 이 두 가지는 그 쓰임이 하나이다. (夫不賢, 則無以御婦, 婦不賢, 則無以事夫, 夫不御婦, 則威儀廢缺, 婦不事夫, 則義理墮闕. 方斯二者, 其用一也.)”
- 4) 《女誡·敬順·第三》의 기록에 의하면, “무릇 부부란 義(올바른 도리)로서 화목하고 친하며, 恩(사랑)으로서 화합한다. (夫爲夫婦者, 義以和親, 恩以好合.)”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恩義로 맺어진 사이로, 남편의 통솔에는 억압이나 착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본래 여성의 ‘섬김’은 가정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요구되어진 역할이지 남성의 지배를 위해 강요된 역할이 아니다.
- 5) 《女誡·敬順·第三》에 “敬順의 도리는 부녀자의 大禮이다.(敬順之道, 爲婦之大禮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편을 섬김에 있어 만족함을 알고 관용의 자세로 임한다면 남편의 결함을 보고 무시하거나 남편의 잘못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 무시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지 않으면 부부간에 사랑과 의리가 쌓여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아래에 처하면서 남편을 변함없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敬順之道”는 바로 가정의 번영을 위해 여성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규범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여성이 수행한 ‘섬김’의 역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사실, 여성의 ‘섬김’은 남성이 통솔이라는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明朝 仁孝文皇后가 남긴 글에 의하면, “예로부터 나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모두 內助의 德이 있었기 때문이다.”⁶⁾ 이처럼 여성의 ‘섬김’의 작용은 국가의 번성을 이룩하는 초석으로 찬미될 정도였다. 국가를 이끄는 중심 주체인 남성은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여성의 ‘섬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중심과 주변은 항상 상보관계에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변부 문화에서 여성이 만들어낸 ‘섬김’의 문화는 남성들이 창조해낸 중심부 문화와 함께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明代 말엽에 간행된 話本小說⁷⁾에 등장하는 여성인물형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실천한 ‘섬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적세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전통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한 성역할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중국전통가정의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話本小說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섬기는 대상이 남편 개인에 국한하느냐 혹은 남편 개인에서 확대된 가족이나에 따라 다소 상이한 행동양상을 보인다. 섬기는 대상이 남편 한사람에게 집중된 경우 여성들은 철저한 도덕적 신념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다. 도덕적 여성인물은 절개를 지키

6) “自古國家肇基，皆有內助之德。”《內訓·崇聖訓章第十》

7) 明代 간행된 話本小說 중 본고의 연구대상은 《三言》, 《二拍》, 《石點頭》 등으로 한정시키기로 한다.

며 헌신적으로 내조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섬김의 禮를 다한다. 한편, 섬기는 대상이 남편을 포함한 전 가족으로 확대된 경우 이들 여성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자결하지 않고 살아서 다른 가족들을 공양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섬김을 대신한다. 현세적 측면에서 보면, 공연히 자결하여 시부모님을 의탁할 곳이 없게 만들고 자식들을 고아로 만드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섬김은 대상이 남편이나 혹은 가족이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섬김’의 구체적 양상을 아래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할 도덕적 여성인물과 합리적 여성인물이라는 두 개념은 話本小說에 보이는 독특한 인물창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극히 문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II. 남편에 대한 ‘섬김’

話本小說에 등장하는 도덕적 여성인물은 賢母良妻, 義婦, 烈婦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투철한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물형상의 탄생은 당시 明代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국 역사상 明代는 여성의 정조를 가장 중시한 왕조⁸⁾로, 明太祖는 개국과 동시에 정절을 표창하는 제도를 수립했다. 明太祖는 洪武元年(1368年)에 ‘민간의 과부 가운데 30세 이전에 남편을 잃고 50세 이후에도 개가하지 않고 수절한 여성에게는 표창하고 열녀문(門閭)을 세워주며, 그 본가에는 요역을 면제해준다.’⁹⁾라는 내용의 조칙을 내린 후 洪武 3年(1370年)

8) 실제로, 역대 중국왕조의 正史를 살펴보면 明代 節婦 수는 그 이전 시대 전체를 합한 수의 85%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한다.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64쪽 표1 참조.

9) “民間寡婦，三十以前夫亡守制，五十以後不改節者，旌表門閭，除免本家差役。”(《明會典》)

에 이것을 정식으로 법제화했다. 정절표창제도의 공고화로 인해 여성의 守節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明史·列女傳》序文에 보면, “명나라가 흥기하면서 (節烈之女에 관한) 규범과 조항을 만들었다. …… 행실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는 사당을 하사했으며, 그 다음으로 우수한 자에게는 牌坊을 세워주었다. …… 그리하여 벽촌의 빈천한 집안 여인도 굳은 지조와 결백함을 스스로 힘써 연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實錄과 郡邑志에 기록된 자가 만여 명이 넘는다. 그 중에는 문예가 뛰어난 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節烈이 훌륭한 자이다. 아아! 그 성대함이어. …… 지금 그 우수한 자를 모아서 시대별 혹은 유형별로 한 편에 모아 기록하니, 前史(에 기록된 節烈之女)와 비교해보면 대략 두 배 가까이 된다.”¹⁰⁾ 이 기록은 明代 여성의 節烈 행위가 신분과 지역을 망라해서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조표창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明 조정은 정조관념을 강조하는 유가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널리 보급된 여성교육용 서적 《女四書》중의 《女誡》편을 보면, “《禮》에는 남편은 다시 장가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부인이 두 번 시집갈 수 있다는 글귀는 없다.”¹¹⁾를 바탕으로 남편은 하늘이기에 하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듯이 남편의 뜻을 위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¹²⁾ 그리하여 남편이 죽었을 때 개가하는 것은 바로 그 남편을 배반하는 것이 되므로 개가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守節은 부인이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한 남편에게 절개를 바치는 숭고한 행위라는 의미로 숭상되었다.

정조표창제도와 유가윤리교육의 영향으로 정조관념은 확산되어 문학창작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본소설에서 철저한 도덕적 신념을 바탕

10) “明興, 著爲規條, …… 大者賜祠祀, 次亦樹坊表. …… 乃至僻壤下戶之女, 亦能以貞白自砥, 其著于實錄及郡邑志者, 不下萬餘人, 雖間有以文藝顯, 要之節烈爲多. 嗚呼! 何其盛也, …… 今掇其尤者, 或以年次, 或以類從, 具著于篇, 視前史殆將倍之.” (《明史》卷三百一·列傳第一百八十九)

11) “《禮》, 夫有再娶之義, 婦無二適之文.” (《女誡·專心·第五》)

12) “夫者天也, 天固不可違, 夫固不可離也.” (前揭書)

으로 ‘섬김’의 의무를 진지하게 수행한 여성형상은 바로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화본소설 속에서 ‘섬김’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不事二夫) 守節 행위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 내조로 구체화 되고 있다. 여성은 인내와 희생의 세월을 묵묵히 참아내는 동안 내면적 성숙을 이룩하여 마침내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한다. 아래에서 도덕적 여성인물들의 고통 및 애환 그리고 도덕적 승화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예술적 감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守節 행위는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이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不事二夫 정신은 불행한 결혼생활이 예견되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혼인을 이행하는 약혼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明末과 淸初에 일찍 약혼하는 관습이 성행했다는 焦循(1763~1820年)의 기록¹³⁾을 감안할 때 약혼녀가 절개를 지키는 행동은 실제로 종종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警世通言》 第17卷 《鈍秀才一朝交泰》의 六映, 《醒世恒言》 第25卷 《獨孤生歸途鬧夢》의 白娟娟, 《醒世恒言》 第5卷 《大樹坡義虎送親》의 潮音, 《醒世恒言》 第20卷 《張延秀逃生救父》의 玉姐 등은 不事二夫 정신을 투철하게 지닌 여성들이다. 이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정혼하며, 이후 약혼남의 경제적 몰락 혹은 질병으로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하지 않으려 한다. 그 대표적 예로, 《醒世恒言》 第25卷 《獨孤生歸途鬧夢》의 白娟娟의 경

13) “옛날에는 貞女가 적었는데 지금은 貞女가 많아졌다. …… 지금 사람들은 어려서 정혼하여 5년 혹은 10년 심지어는 이삼십년을 기다린다. …… 옛날의 부부는 친히 맞이함으로써 (혼인을) 확정지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라의 율법에 딸을 시집보냄에 있어 이미 혼인서약서가 있는데 사사로운 (다른 혼인) 약속을 하거나 후회하는 자는 곤장 50대이다. …… 옛날에는 친히 맞이함으로써 확정했기에 남편이 죽어 재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예물 받는 것으로서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예물을 받으면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재가하는 것이 불가하다. (古之貞女少, 今之貞女多. 何也? 古男女議昏晚. …… 今人齟齬議昏, 或遲五年, 或遲十年, 甚至二三十年. …… 古之夫婦以親迎爲定也. 今則不然. 國律, 許嫁女已報婚書及有私約而輒悔者笞五十. …… 古定以親迎, 而夫死, 嫁之可也. 今定以納采, 則一納采, 而夫死, 嫁之不可也.)” (焦循, 《雕菰集·卷八貞女辨下》)

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白娟娟과 遐叔은 어릴 때 약혼하지만 장성하여 혼인하려 할 즈음 遐叔이 조실부모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白娟娟의 오빠 白長吉은 파혼하고 여동생을 부잣집에 시집보내려 하지만 그녀는 완강히 저항한다.

“그 白行簡의 아들 白長吉은 흉악하고 권세와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다. 遐叔의 가계가 빈궁해지자, 그와의 혼인을 파기하고 여동생을 安陵의 부자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다행히 娟娟 아씨가 貞烈을 지키는 여인이었기에 절개를 바꾸지 않을 것을 결연히 맹세했다.”¹⁴⁾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청춘남녀들은 대부분 결혼 전에는 자신의 약혼자를 보지도 못했거니와 알 기회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남성의 경제적 몰락에도 불구하고 약혼대로 결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의 행동은 확고한 도덕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도덕적 신념은 《喻世明言》 第27卷 《金玉奴棒打薄情郎》의 金玉奴 형상을 통해 훨씬 선명하게 나타난다. 金玉奴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不事二夫 정신을 고집한다. 金玉奴의 남편 莫稽는 과거에 급제하자 미친한 계층출신인 아내를 강물에 빠뜨리고 고관 집 규수와 혼인하려 했다. 조강지처를 저버린 남편의 배신행위에도 불구하고 金玉奴는 부녀자의 도리를 내세우며 결코 개가하려 하지 않는다.

“저는 비록 비천한 집안 출신이나, 예의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미 莫郎과 부부가 되었으니, 평생토록 한 사람만을 섬길 것입니다. 비록 莫郎이 (저희 친정의) 미천함을 싫어하여 賤妾을 저버려 무정하게 하늘의 이치를 어겼으나, 저는 (부녀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어찌 다시 시집가서 부녀의 절개를 훼손시키겠습니까?”¹⁵⁾

14) “那白行簡的兒子叫做白長吉，是個凶惡勢利之徒。見遐叔家道窮了，就要賴他的婚姻，將妹子另配安陵富家。幸得娟娟少姐是個貞烈之女，截髮自誓，不肯改節。”

15) 玉奴答道：“奴家雖出寒門，頗知禮數。既與莫郎結髮，從一而終。雖然莫郎嫌貧棄

다음으로 ‘섬김’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 구체적 인물로 《警世通言》 第31卷 《趙春兒重旺曹家莊》의 趙春兒, 《喻世明言》 第40卷 《沈小霞相會出師表》의 聞淑英, 《醒世恒言》 第19卷 《白玉孃忍苦成夫》의 白玉孃, 《醒世恒言》 第9卷 《陳多壽生死夫妻》의 朱多福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남편이 위기—경제적 몰락,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유배, 전란으로 인한 포로생활, 심각한 질병 등—에 직면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과 용기를 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는다. 趙春兒는 남편이 도박과 음주벽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매일 엄청난 양의 배를 짜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이어간다. 聞淑英 역시 死地로 호송되던 남편을 몰래 도주시킨 뒤 자신은 혼자 절에 들어가 수절하면서 자식을 양육한다. 白玉孃은 타국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程萬里과 결혼하여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공명을 도모케 한 후, 자신은 홀로남아 20여 년간 수절한다. 朱多福은 陳多壽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혼대로 혼인한 후¹⁶⁾ 헌신적으로 간호한다. 자신의 목숨까지 불사하는 朱多福의 헌신적 내조는 참으로 눈물겹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받들고 보살폈다. 탕을 달이고 약을 끓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직접 맛을 보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정말로 의복의 허리띠도 풀지 않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가려우면 때에 맞추어 어루만지고 문질러주었다. 옷에 땀 피 냄새와 고름 비린내는 정성껏 삶아 빨았다. 단지 가슴을 풀어 젖을 물리는 것만 안했을 뿐, 분명 유모가 아기를 기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또 마치 효부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허벅다리 살을 끊어 죽을 끓이려고 날마다 궁리하는 것 같았다. 부부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움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니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賤, 忍心害理, 奴家却盡其道, 豈肯改嫁, 以傷婦節?”

- 16) 多福은 말하길: “여태껏 良家집 여인이 두 집의 차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빈부와 고락은 모두 운명에 정해진 것입니다. 살아서는 陳家 여인이며, 죽어서는 陳家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多福道: 從沒見好人家女子喫兩家茶, 貧富苦樂, 都是命中注定. 生爲陳家婦, 死爲陳家鬼.)”

아내라고 불리는 것이 유명무실하였으니, 젊은 아녀자가 즐거움은 적고 근심이 많은 것이 가련하도다.”¹⁷⁾

多福은 여성 특유의 모성애를 충분히 발휘하여 남편을 극진히 간병했다. 陳多壽는 아내의 헌신에 감격하여 병을 고치기 위해 갖은 노력과 방법을 다했으나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陳多壽는 절망하고 음독자살을 기도한다. 썩 의식 투철했던 朱多福은 남편의 자살을 목도한 후 남편을 따라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여 정조를 보전한다.

이상의 도덕적 여성들은 자아의 이기적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남편의 성공과 가정의 번영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자신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고 격상되었다. 趙春兒는 잘못을 저지른 남편에게 간곡하게 충고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책임진다. 그녀의 내조로 인해 남편은 결국 개과하여 공명을 성취하게 된다. 聞淑英의 남편 沈小霞하는 유배지로 끌려가던 중 聞淑英의 도움으로 도주하여 무사히 생명을 보전하고 8년 후 嚴嵩 일당이 처벌되자 풀려나 관직을 회복하게 된다. 게다가 聞淑英이 집에 들어가 아이를 양육해준 덕분에 沈家의 혈통도 끊어지지 않았다. 元의 장수에게 잡혀와 있던 程萬里는 아내 白玉孃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공명을 성취하여 벼슬이 陝西參政에까지 이른다. 朱多福 고사에서도 多福의 극진한 간병이 하늘을 감동시켜 다수는 되살아나 글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이들의 성공과 출세는 그 바탕에 空虛한 아내의 ‘섬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空虛가 光明을 성취시키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하였다.¹⁸⁾ 여성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17) “着意殷勤, 盡心伏侍. 熬湯煮藥, 果然味必親嘗. 早起夜眠, 眞個衣不解帶. 身上東疼西癢, 時時撫摩. 衣裳血臭膿腥, 勤勤煮洗. 分明傳母育嬌兒, 只少開懷哺乳. 又似病姑逢孝婦, 每思割股烹羹. 雨雲休想歡娛, 歲月豈辭勞苦. 喚嬌妻有名無實, 憐少婦少樂多憂.”

18) 이것은 老子가 말한 道의 작용과 동일하다. “되돌아가는 것은 道의 움직임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道의 쓰임이다. 천하 만물은 有에서 생겨나고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道德經》제40장)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내한다. 게다가 남성의 출세에 은공이 있으면서도 그 공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女中丈夫’라는 미명을 얻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一品夫人’에 봉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도 한다. 물론 도덕적 여성인물형상의 이면에는 남성들의 立身이라는 이기적 욕망이 깔려있어 가부장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삶이란 생명을 살리는데 온 힘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속적 성취와는 상관없이 남편을 살리는데 혼신을 바친 여성들의 삶은 그 자체로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도덕적 여성인물이 결말부에서 획득하는 희생에 대한 보상은 소설의 효용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길 강요당하면 그 결과 원망과 恨이 생기고 누적된다. 따라서 사회 혹은 주변 환경은 그들의 희생에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으면 恨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전환된다. 반면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그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어 창조적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밑거름이 된다. 때문에 희생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고사 속에서 남성은 여성이 섬김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동안 잠시 사라진다. 결말에 와서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그들의 출세와 성공은 극적 효과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여성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강하다. 희생에 따른 보상을 안겨주어 희극적으로 고사를 마무리하는 수법은 소설의 효용성 이외에 명대 도시민의 낙관적 세계관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 당시 도시사회에는 善을 행하면 善果가 돌아온다는 因果應報 관념이 매우 확산되어 있었다.

한편,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이 남편을 섬기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굳은 도덕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섬김’ 행위가 어떠한 내면적 고뇌를 거쳐 나온 것인지에 관한 묘사나 설명이 거의 없다. 때문에 ‘섬김’을 행한 구체적 동기와 이유를 파악하

고 ‘섬김’에 투영된 여성인물들의 내면세계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중국고전소설의 서술 특징—인물의 성격적 특징만 부각시킴¹⁹⁾—과 일정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한편으론 도덕규범의 공고화라는 지나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인물형상을 창조했던 작자의 한계로도 보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당시 남성작가들이 여성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Ⅲ. 가족에 대한 ‘섬김’

여성에게 요구된 정조관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도덕적 가치의 범위를 벗어나 형식화하여 결국 여성을 억압시키는 기제로 변질되었다. 節烈을 요구하는 정조관념은 여성에게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여성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원래 각종 제도와 규범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을 속박, 구속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성향이 있다. 이 때문에 당대인들은 정조관이 생겨나게 된 구체적 이유, 소이를 염두에 두면서 정조관념이 형식 일변도의 경직화로 빠져 든 현실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했다. 《警世通言》第三十五卷 《況太守斷死孩兒》에서 작자는 과부에게 일률적으로 수절을 강요하던 세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이 고사 속에서 작자는 수절을 맹세한 과부 邵氏가 자멸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節 행위가 인간의 기본 욕망과 상충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작자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강요된 守節은 위선이기에 틀림없이 폐단을 초래할 것임을 예견한다.

19) 네덜란드의 저명한 漢學者 이드마(W.L.Idema)는 <寫實主義與中國小說>에서 중국소설의 서술방법상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중국소설 속의 주인공은 대부분 어떤 모종의 유형(Types)에 속하며, 개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작자는 종종 겨우 한 두개 특징만으로 인물을 묘사하고, 동작과 대화로 인물의 특성을 표현한다.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을 적게 기울인다.”(《中國古典小說研究專集》 1권, 18쪽.)

“예로부터 ‘세말의 초를 삼켜야 과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과부는 지켜내기 쉽지 않다. 邵氏를 위해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깨끗이 재가하는 것이 낫다. 비록 상등 인간은 되지 못할지라도 중등은 될 것이며 훗날 불미스런 사건을 낳지 않게 된다. 일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진중해야 한다. 사람됨에 있어 헛된 명분을 절대 도모하지 말라.”²⁰⁾

과부가 헛된 명분의식에 사로잡혀 수절하는 것은 人情에 어긋난다고 인식한 작자는 과부의 재가를 찬성한다. 이처럼 작자는 형식화된 정조관념이 초래한 폐단을 목도하고 있었다.

守節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동시에, 당대인들은 烈 행위가 갖는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남편이 사망하면 따라 죽어 정조를 보전하는 烈 행위는 사실 시부모와 자식에게 커다란 손실과 해악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大義를 위해 烈 행위를 유보하자는 주장이 출현했다. 다음의 《楊氏家訓》에 기록된 내용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嘉靖時期 楊繼盛은 임종시 아내 張氏에게 烈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주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충고했다.²¹⁾

“옛사람이 말하길: 죽음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고, 기러기 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다. 무릇 죽어야 할 때 죽으면 그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죽지 않아야 할 때 죽으면 그 죽음은 실제에 무익하니 기러기 털보다 가볍습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도리에 맞는지 살

20) “自古云: ‘呷得三斗醋, 做得孤孀婦.’ 孤孀不是好守的. 替邵氏從長計較, 倒不如明改個丈夫, 雖做不得上等之人, 還不失爲中等, 不到得後來出醜. 正是: 作事必須踏實地, 爲人切莫務虛名.”

21) 大義를 위해 烈 행위를 유보하는 사례는 明代 嘉靖四十五년에 간행된 《徽州府志》 卷20에도 기록되어 있다. 설씨는 23세에 과부가 되었지만 사촌 오빠의 설득으로 18년 동안 죽음을 연기했다. 사촌오빠가 그녀에게 설득하길: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다. 정당한 이유로 죽으려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네게는 시할머니와 시부모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구나. 그들은 모두 늙으셨다. 네가 그분들을 공양할 수 있다면 네 남편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99쪽 참고.)

펴야 합니다. 남편이 죽어 따라 죽는 자는 대개 남편에게 보살펴야 할 자녀가 없기에 살아도 쓸모가 없으므로 남편을 따라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으로 그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우므로 그것을 일러 貞節이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죽은 뒤 어린 자식을 양육할 사람이 없다면 아내의 한 몸은 시댁 제사의 명맥이므로 일생의 사업은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만일 죽는다면 시댁 제사를 팽개치고 남편의 사업을 망치고 남편의 중대한 부탁을 저버리게 되니 남편에게 죽은 후에도 막대한 근심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기러기 털처럼 가볍고, 뿐만 아니라 도리를 모르는 여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받게 될 것 입니다.”²²⁾

楊繼盛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烈 행위는 자식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 의의를 갖게 된다. 말하자면 자식 있을 경우 여성의 烈 행위는 죄악이다. 왜냐하면 자식의 양육은 혈통을 계승하는 중대한 일이므로 사사로운 신의를 지키려고 자결하는 烈 행위는 감히 비견될 수 없다. 목숨은 작은 신의를 지키는데 쓰기보다 大義를 위해 바쳐야 한다. 사실 이는 전통적 유가사상에 연원한 것으로, 孔子는 일찍이 “필부필부가 작은 신의를 위해 도랑에서 자결하여 아무도 모르게 되는 행위”²³⁾을 나무라면서 작은 신의와 작은 절개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경계한 바 있다. 형식화의 길로 치닫던 정조관념은 孔子 사상을 바탕으로 程도 수정에 착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節烈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과부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작은 신의에 얽매이기보다 大義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石點頭》 第二卷 《盧夢仙江上尋妻》의 方姨娘을 통해 잘 드러난다.

22) “古人云：死有重於泰山，有輕如鴻毛。蓋當死而死，則死比泰山尤重，不當死而死，則死無益於事，比鴻毛尤輕。死生之際，不可不揆之於道也。……有夫死同死者，蓋以夫主無兒女可守，活着無用，故隨夫亦死，這才謂之當死而死，死有重於泰山，才謂之貞節。若夫主雖死，尚有幼女孤兒，無人收養，則婦人一身，乃夫主宗祀命脈，一生事業所系於此。若死，則棄夫主之宗祀，隳夫主之事業，負夫主之重托，貽夫主身後無窮之慮，則死不但輕如鴻毛，且爲衆人所唾罵，便是不知道理的婦人。”(《楊忠愍公遺筆·愚夫諱賢妻張吉貞》)

23)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論語·憲問》)

方姨娘이 남편을 따라 죽어 烈婦가 되려는 妙惠를 만류하는 장면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盧夢仙의 부모는 아들이 객사하고 생활고에 직면하자 머느리 妙惠를 재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烈 의식이 강한 妙惠는 시부모의 뜻을 거절한다.

“제가 어린 나이로 의탁할 사람이 없게 되자 염려하시어 개가시키려 한 시아버님의 생각은 본디 좋은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길,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게다가 또 흉년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가난한 운명이니 아마도 평생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재가하여 또다시 무슨 번고가 생기면 어찌 지금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결하여 일찌감치 정도에 묻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²⁴⁾

妙惠는 죽고 삶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 앞날을 비관하고 자결하려 한다. 이때 方姨娘은 節婦가 烈婦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역설하면서, 妙惠가 생각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方姨娘이 말하길, “여자가 (정절을 지켜)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당연히 正理이지만, 거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변통성이 있으므로 한 가지 견해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부녀자들이 남편이 죽는 날 함께 자결했는데 이를 일러 烈婦라 합니다. 비록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곧은 기개가 매섭긴 하나 節婦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겠습니까? 烈婦는 일시 격분하여 행동한 자이며, 節婦는 평생 온갖 고초와 풍상을 겪고 외로움과 적막함을 견디면서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순결하게 節을 지켜내었으니, 어찌 烈婦보다 몇 배 훌륭하지 않습니까?” …… 方姨娘은 말하길, “…… 節婦가 되려는 자가 어찌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오히려 깨끗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이런 술한 외로움과 고초를 겪으려 합니다. 그 중에는 시부모님이 생존하신데 형제가 없어 만일 부부가 모두 죽으면 그들을

24) “公公念我媳婦年小無依，教我改嫁，原是好意。但媳婦自想，幼年喪母，早年喪夫，又遭此凶荒，孤窮之命，料想終身無好處。萬一嫁去，又變出些什麼事故，豈不與今日一般。爲此不如尋個自盡，倒得早生淨土。”

모실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살아서 남편을 대신하여 시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혹은 시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자식이 襁褓에 있거나 너무 어려서 만일 남편을 따라 죽으면 고아를 양육할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살아서 남편을 대신하여 부양하여 장성케 하여 종묘와 사직을 계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節婦는 烈婦처럼 자기 한 몸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됩니다. 당신의 경우는 비록 자식은 없지만 시부모님이 계시니 이치상 마땅히 남편을 대신하여 받들면서 공양하여 임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흉년을 만나 가계가 궁핍해져 당신을 개가시키려 한 것은 조석의 생활비를 마련코자 함에 서였으니 이는 아마도 부득이함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당신이 만일 자결하면, 시부모님은 혼인비용을 얻지 못해 餘生의 끼니를 잊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여 재가시킨 不義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烈은 烈이니, 남편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한 것이니 아마도 구천지하에서 유감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익한 죽음입니다.”²⁵⁾

이상에서 方姨娘은 節婦와 烈婦를 비교하면서 節婦의 고통스런 삶과 위대함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은 節烈을 실천하거나 또는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전자를 실천한 사람은 烈婦, 후자를 실천한 사람은 節婦라 불린다. 大義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한다는 유가적 정신에서 봤을 때 시부모 봉양과 자식양육을 등한히 한 채 烈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한 몸만을 보존한 행위로 그 죽음은 가치

25) 方姨娘道：“女子以身殉夫，固是正理，然其間亦有權變，不可執泥一見。古來多少婦人，夫死之日，隨亦自盡，這叫做烈婦。雖則視死如歸，正氣凜凜，然終比不得節婦。却是爲何？這烈婦，乃一時憤激所致。怎如節婦，自少至老，閱歷多少寒暑風霜，淒涼寂寞，自始至終，冰清玉潔，全節完名，可不勝于烈節幾倍。”……方姨娘道：“……做節婦的，豈不知以身殉夫，反得乾淨，却肯受這許多淒涼苦楚。其間或有公姑，別無兄弟，若夫婦俱亡，父母誰養。故不得不留此身，以代丈夫養親。或無公姑，却有子嗣：或在襁褓，或在稚年。若還隨夫身死，孤兒誰育。又不得不留此身，爲夫撫養成立，承紹宗祀。故節婦不似烈婦止全一身，所以爲貴。像你雖無子嗣，却有公姑，理當代夫奉侍，養生送死。不幸遭此歲荒家窘，要你改嫁，爲朝夕薪水之計，此或出于不得已，未可知也。你若一旦自盡，公姑不惟不得嫁資，以膳餘生，反使有逼嫁不義之名。烈則烈矣，但不能爲丈夫始終父母，恐在九泉，亦有遺憾，此便是死而無益。”

없는 죽음이다. 이에 方姨娘은 시부모 공양을 저버린 채 남편을 따라 죽으려는 妙惠의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충고한다. 이로 인해 妙惠는 자신에게 부과된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깨닫는다. 節烈 의식에 속박되어 죽음의 문제를 일신의 문제로만 여겼던 妙惠는 시부모 봉양이라는 大義를 위해 삶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大義를 위해 烈 행위²⁶⁾를 잠시 유보하는 인물로 《醒世恒言》 第三十六卷 《蔡瑞虹忍辱報仇》의 蔡瑞虹 역시 주목할 만하다. 蔡瑞虹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부임지로 가던 도중 뱃사공 일당들에게 화를 당한다. 뱃사공 일당들은 재물을 다 빼앗고 蔡瑞虹 부모를 죽이며, 蔡瑞虹의 정조를 유린한다. 치욕을 당한 蔡瑞虹은 자결하려다가 이내 생각을 바꾼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지 못한 채 목숨을 끊으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기 때문이다.

瑞虹은 울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만일 죽으면 一家의 원수는 누가 갚겠는가? 수치와 모욕을 참고 복수하고 나서 죽어도 늦지 않다.”²⁷⁾

宋代 이래로 ‘굶어 죽는 일은 작은 일이고, 失節은 큰 일이다.(餓死事小, 失節事大.)’라는 기치로 여성에게 정조를 중시했던 중국의 전통적 정절관념에 입각한다면 失節당한 蔡瑞虹은 즉시 자결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석한다. 사회의 범죄세력에 대해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失節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녀는 ‘원망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맞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烈女란 ‘危難을 당하여 목숨으로 貞操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이 걸쳐 고난과 싸우며 守節한 부녀자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녀 역시 위기를 당했을 때 목숨으로 정조를 지키려했다면 역시 烈女の 범주에 포함된다.

27) 瑞虹一頭哭, 心中暗想: “我若死了, 一家之仇, 那個去報? 且含羞忍辱, 待報仇之後, 死亦未遲.”

게 갚는다.’²⁸⁾는 유가정신에 입각하여 복수 의지를 불태웠다. 범죄세력을 징벌함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기에 실절하고서도 삶을 선택한 그녀의 행동은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의 유가적 정신은 孝行 방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가 부임 발령을 받았을 때 그녀는 부임을 만류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나친 애주가인지라 관직에 나아가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간곡한 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리되자 그녀는 더 이상 간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르기로 결정한다. 일찍이 孔子는 “부모를 섬길 적에는 부드럽고 완곡하게 간해야 한다. 부모님의 뜻이 (나를) 좇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경하여 어기지 말아야 하고 근심하면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²⁹⁾라고 말한 바 있다. 몇 번 말리다가도 아버지가 자신의 간언을 취하지 않으면 설령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함께 나서는 것, 이것이 유가적 효행관이다. 이런 점에서 蔡瑞虹의 행동은 객관적인 시비판단에 따른 행동도 아니며 맹목적인 복종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止揚이 개재된 주관적 사랑을 실천하는 유가적 효행의 대표적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정조관념과 유가적 효행관을 지닌 蔡瑞虹은 유교적 사회가 배출해낸 합리적 사고를 지향하는 여성의 전형적 인물이다.

요컨대 합리적 여성인물형상은 大義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진리를 찾아 행동하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참된 신뢰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남편에 대한 섬김은 반드시 개인의 戾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보다 큰 大義의 실천으로 대체되었다. 당연히 합리적 사고방식을 표방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마땅히 시세에 영합하는 이기적 행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정조관념의 경직화로 말미암아 정신적 순결보다 육체적 순결이 더 강조되어 여성의 육신을 남편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여성은 육체적 정조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었기에

28) “以直報怨，以德報德。”(《論語·憲問》)

29) “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論語·里仁》)

설령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순결을 더럽혔을 경우라 해도 용납되지 않았다. 지나친 육체적 순결의 중시로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이 아깝게 희생당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拍案驚奇》第六卷《酒下酒趙尼媼迷花 機中機賈秀才報怨》 고사에서 賈秀才는 여성이 타의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하고서 즉시 자결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했다. 아내 巫氏가 趙尼姑의 계략에 말려들어 卜良에게 失節 당하자 그는 아내의 失節이 스스로 남편에 대한 절개를 저버린 것과 다르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양해하고 자결하려는 아내를 만류한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자결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한다.

“지금 만일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자결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오. …… 당신이 죽으면 당신 친정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그 까닭을 물을 것이니 만일 말해버린다면 당신은 죽어서도 汚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게다가 나의 앞길도 끝나버릴 것이오.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 가족들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오. 나 자신조차도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원수는 언제 갚는단 말 이오?”³⁰⁾

이처럼 賈秀才는 아내의 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예상한다. 아내의 자결로 인해 失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내는 汚名을 얻게 되고 자신의 앞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아내가 자결한 이유에 대해 함구하면 처갓집에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니 그리되면 아내를 겁탈한 자를 찾아내어 보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처럼 아내의 자결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손실만 가져올 뿐이었다. 남편의 이해와 권고로 巫氏는 자결하지 않고 이후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남성권위주의의 산물로 나타났던 육체적 순

30) 賈秀才如此對妻子說：“今若輕身一死，有許多不便。……你死了，你娘家與外人都要問緣故，若說了出來，你落得死了醜名難免，抑且我前程罷了。若不說出來，你家里族人，又不肯干休于我，我自身也理不直，冤仇何時而報？”

결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이러한 합리적 사고로 인해 그 공고했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처럼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정조관념을 형식일변도의 경직화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규범을 이룩하고자 했던 이러한 노력은 종종 私益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이용되어 결국 정조관념의 해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영리 추구에 열중하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정조관념은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조관념의 해이 현상은 《二刻拍案驚奇》第二十八卷 《程朝奉單遇無頭婦 王通判雙雪不明冤》에 잘 나타나 있다. 작은 주점을 경영하는 李方哥는 자신들같이 미천한 계층의 여성은 정숙하게 정조를 지켜도 아무런 사회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음을 간파한다.³¹⁾ 이즈음 李方哥는 巨商 程朝奉으로부터 아내를 하룻밤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고 급기야 허락해준다. 호색한인 程朝奉이 李方哥 아내 陳氏의 출중한 미모를 보고 탐하여 돈을 가져가 이렇게 제의한 것이다. 1년 동안 고생해도 몇 냥밖에 벌지 못하는 영세상인 李方哥에게 있어 30兩이란 액수는 그 야말로 커다란 유혹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일시의 수치만 참으면 된다면 아래와 같이 종용한다.

“모처럼 부잣집 어르신께서 오히려 우리를 생각해 온 것이니 우리가 일시의 부끄러움만 참으면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을 것이요. 지금은 혼탁한 세

31)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26-27쪽을 보면, ‘당시 정숙한 과부를 기념하는 牌坊(표창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집 앞에 건립한 것이다. 명초에는 조정에서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만 패방을 내리다가 1426년부터는 鄉試, 殿試 합격자에게도 이런 명예가 주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의 건립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비용은 보통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서민들에게 수절한 과부(어머니일 경우)를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찮은 경비가 요구되는 일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대목은 李方哥가 자신은 문벌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력 있는 친족이 없어서 설령 정숙한 과부가 탄생한다하더라도 牌坊을 세워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상이고, 우리는 또 무슨 문벌가문도 아니니 맑고 깨끗함을 지켜봤자 아무
도 당신을 위해 牌坊을 세워주어 칭송하는 이가 없을 것이오.”³²⁾

영세 자영업자 李方哥는 아내가 평생 정조를 지킨다 해도 아무런 사회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면 큰 이익을 얻게 되니 당연히 후자 쪽이 취할 만 하다고 여겼다. 물론 그는 아내의 정조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점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으나,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그에겐 윤리도덕 문제를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³³⁾ 미천한 출신의 여성의 수절은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익을 챙기는 실리적 노선을 걸은 李方哥의 행동은 인륜도덕을 저버린 지나친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남편의 권유를 받아들인 陳氏는 결국 어느 승려에게 피살 당하고, 李方哥 역시 관아에 잡혀가 곤장을 맞는 비극으로 끝난다.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하층민들에게 있어 공허한 명분은 의미가 없었기에 정조관념은 숭고한 가치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IV. 결 론

이상에서 여성인물형상이 ‘섬김’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중국전통가정에서 주변적 위치에 처해있었던 여성의 의미를 탐색해

32) “難得財主家倒了運來想我們，我們拚忍着一時羞恥，一生受用不盡了。而今總是混帳的世界，我們又不是甚麼闊闊人家，就守着清白，也沒人來替你造牌坊，落得和同了些。”

33) 영세 상인이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二刻拍案驚奇》卷十 《趙五虎合計挑家釁 莫大郎立地散神奸》의 朱三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朱三은 莫老翁 집의 하녀 雙荷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결혼 후 雙荷가 莫老翁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朱三은 이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莫老翁이 달마다 생필품을 꼬박꼬박 보내주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朱三은 장사치로, 단지 작은 이익만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다.(朱三是個經紀行中人，只要些小便宜，那里還管青黃白?)” 물론 한창 부부애가 솟아날 신히이었다는 점도 그가 雙荷의 임신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

보았다. 중국 전통사회의 가정은 남성의 통솔과 여성의 섬김이라는 상호 작용을 근간으로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낮은 곳에 처하면서 관용의 자세로 남편을 섬겨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들은 ‘섬김’의 역할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여겼고, 유교적 윤리도덕을 내면화하여 도덕적 완성을 추구했다. 남편을 섬기는 행위는 남편의 성공과 출세 그리고 가족의 번영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섬김’은 자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화목한 가정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空虛한 ‘섬김’의 작용은 老子가 말한 道의 작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남편과 가족을 섬기면서도 애써 功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여인의 행동은 가히 聖人の 그것에 비견할 만하다. 여성이 만들어낸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만물을 포용하는 문화는 자기중심의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정신적, 물리적으로 타인에게 꺾박을 가하는 남성이 창조해낸 ‘강하고 굳음(強剛)’을 특성으로 하는 중심부 문화에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강하고 굳음(強剛)’은 쇠퇴해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剛強이 柔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柔弱이 剛強을 이기는 것이 자연의 섭리³⁴⁾이다. 여성의 ‘섬김’ 행위는 바로 柔弱이 빛어내는 장엄한 虛靜美를 전달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도가 여성의 ‘섬김’을 남성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결과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출현하기도 했으나, 문학작품 속에서 작자가 여성의 ‘섬김’ 행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섬김’의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인물형상은 진지하고 충실하게 생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인생을 보여줌으로서 인생의 진상을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인생은 고통도 쾌락도 아닌 진지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알려주고

34)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柔弱勝剛強.)”, “강대함은 아래에 처하고, 유약함은 위에 처한다.(強大處下, 柔弱處上)” (《道德經》 제36장, 제76장)

있다. 이것은 작자가 고심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여성인물들이 전달하는 아름답고 숭고한美感이다.

한편, 남편을 성심껏 섬겼던 여성인물형상 자체에 남성 중심의 시각이 농후하게 투영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인물형상은 대체로 남성들이 요구하는 모습만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내면적 고뇌나 애환 등은 자유롭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들 여성인물형상이 결과적으로 남성적 권위가 제도화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지탱시키는데 이용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參考文獻>

- (清)張廷玉等撰,《明史》(第6版;北京:中華書局),1997.
- (明)馮夢龍,《喻世明言》(臺北:鼎文書局),1980.(衍慶堂本影印)
- (明)馮夢龍,《警世通言》(臺北:三民書局),1992.(金陵兼善堂本影印)
- (明)馮夢龍,《醒世恒言》(臺北:三民書局),1995.(金閭葉敬池本影印)
- (明)凌濛初,《拍案驚奇》(臺北:三民書局),1979.(尙友堂本影印)
- (明)凌濛初,《二刻拍案驚奇》(臺北:三民書局),1993.(尙友堂本影印)
- (明)天然痴叟原著,弦聲校點,《石點頭》(南京:江蘇古籍出版社),1994.
- (清)焦循,《雕菰集》(臺北:商務印書館),1966.
- 謝冰瑩等編譯,《新譯四書讀本》(臺北:三民書局),1995.
- 靜宜文理學院中國古典小說研究中心編,《中國古典小說研究專集》1(臺北:聯經出版社業公司),1981.
- 杜學元,《中國女子教育通史》(貴陽:貴州教育出版社),1996.
- 陶毅,明欣,《中國婚姻家庭制度史》(北京:東方出版社),1994.
- 이숙인역주,《女四書》(서울:여이연),2003.
- 김충열,《노장철학강의》(서울:예문서원),1995.
- 김충열,《노자강의》(서울:예문서원),2006.

田汝康 지음, 이재정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서울: 예문서원), 1999.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엮음, 《중국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서울: 서해문집), 1989.

<中文提要>

自古以來，傳統中國家庭以‘夫御婦，婦事夫’爲基本模式，而崇尚婦女敬順爲德。本文主要就明代婦女的敬順之道來進行考察了明代婦女在家庭中的地位及其作用。

在明代話本小說中，婦女們所侍奉的對象大概可分爲兩種：第一則丈夫一人，第二則夫家家族(包括子女在內)。由于侍奉的對象限于丈夫一人，她們主要從事于守節烈與賢內助。這些她們們都忠于自己的道德理想，而操守貞節。還有，夫死之後，婦女們代夫侍奉公姑或養育子女。她們把供養全家當作自身任務，基于舍名求實的精神而不殉夫。爲了代夫養家却放棄了殉夫，這就謂之不烈而烈。

這些婦女們都忍受精神上和身體上的許多痛苦之後，才獲得了贊美與榮耀。婦女的敬順事夫，對丈夫的立身功名與全家繁榮起了決定性的作用。不過，她們反不自夸，不居功，顯得虛靜之美。

婦女文化則以柔弱爲特點的邊緣文化，而男人文化則以剛強爲特點的中心文化。其社會效應方面，婦女的敬順柔弱之邊緣文化乃撐持着男人的中心文化，使中心文化得以更進一步繁榮發展。就自然之道來講，柔弱勝于剛強，故而婦女文化跟男人文化相比，更具有恒久的生命力。

주제어 : 明代婦女, 話本小說, 家庭, 敬順, 節烈, 虛靜